

Z세대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의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book Usage Behavior of University Library by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Impact of COVID-19

장 수 현 (Su Hyun Jang)*
박 윤 서 (Youn Suh Park)**
남 영 준 (Young Joon Nam)***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Z세대 대학생들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독서 행태를 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책 인지 및 이용, 전자책 이용현황, 전자책 선호도 인식, 코로나 전후 대학도서관 및 전자책 이용 비교 항목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Z세대 대학생들의 전자책 이용에는 대학도서관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코로나19는 Z세대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 등 독서 행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reading behavior of Generation Z college students in Korea, including their perception of e-book use, and to find out the changes caused by COVID-19. To this end, university students across the country were surveyed for e-book recognition and use, e-book usage status, e-book preference recognition, and comparison items of university libraries and e-book use before and after COVID-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niversity librar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se of e-books by Generation Z college students, and COVID-19 partially affected reading behavior, such 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average daily reading time of Generation Z college students.

키워드: 전자책, 대학도서관, 코로나-19, 대학생, 독서행태, Z세대
E-books, University Libraries, COVID-19, College Students, Reading Behavior, Generation Z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jangsu8174@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강남구립못골도서관 사서(yspark@gangnamlib.or.kr)
(공동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namyj@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11월 21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12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4): 181-205,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4.181>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은 국내 도서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은 휴관, 운영 시간 축소 및 형태의 변경 등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우, 휴관으로 인해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대출 요구에 답하기 위해 북 드라이브 스루 대출, 책 배달 서비스, 예약 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다수 진행해 코로나19로 도서관 휴관이 잦은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 기간 도서관을 휴관함에 따라, 기존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각종 정보 서비스 및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이용 관련 정량적 수치의 경우, 대출 권수와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자책 대출의 경우 그 선형적 증가 경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되었다(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코로나19의 유행은 삶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보다 전자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시켰으며, 이러한 양상은 도서관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기기와 친숙한 Z세대가 다수 포진해있는 대학생이 주 이용자

인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전국 대학도서관의 대출량 변화와 관련하여, 국내 대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전자책 이용 행태가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전자책에 대한 전반적인 Z세대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전자책 관련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 관련 연구는 소수의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대출 데이터를 분석,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는 등의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전자책 이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Z세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책 이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전자책 독서 행태를 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수서 및 전자책 관련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전자책과 도서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2조 4항에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은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의미한다. 즉, 전자책은 전자출판물의 하위 개념으로, 기존의 종이책과 달리 읽는 행위 외에도 시청각 체험을 통한 독서를 가능하게 하는 출판 간행물이다. 이러한 전자책은 기존 종이책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물리적 공간으로 이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종이책과의 동시 출판과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해 출판사가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전자책은 기존의 종이책과 달리, 멀티미디어와 정보검색 기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책을 활용한 자료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다(남태우, 김진아,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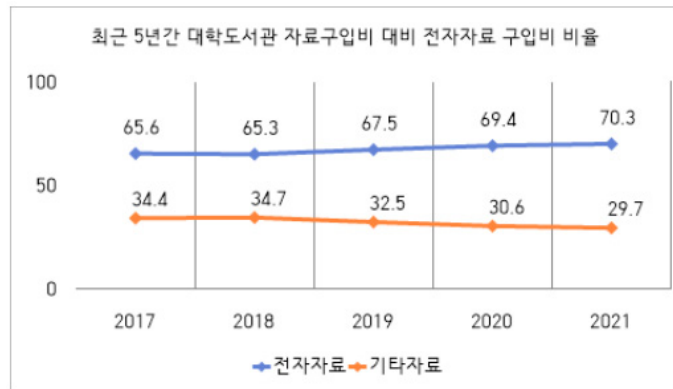
이러한 전자책은 특히 코로나19로 국내 출판 생태계가 점차 랜선 북클럽, 온라인/모바일 서점 등의 비대면 독서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주리, 2021). 국내 전자책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최근 5년 간 매년 20% 이상 계속해서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도매·총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상반기 매출액 증감은 대부분 '감소'했다는 응답인 가운데, 전자책 유통사만은 '거의 비슷함'의 응답이 69.2%로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이러한 전자책 이용 행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

국내 공공도서관 또한 전자책을 도서관 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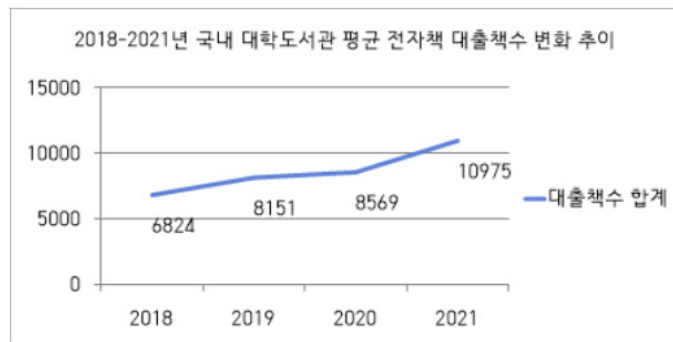
의 한 유형으로 취급해 이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대출 반납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종이책보다 이용에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대출과 반납을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전자책의 장점은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전자책의 큰 차별점으로 입증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시립 및 구립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의 도서관 288개관의 79.9%는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전자도서관과 통합전자도서관 모두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또한 확인할 수 있다(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의 제한없는 전자책 서비스 제공은 2021년 2월 한국도서관협회에 발송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 요청' 공문과 같은 출판업계와의 지속적인 갈등에 놓여있는 상황이다(이호신, 2021). 이러한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비단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며, 타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을 찾아볼 수 있다(Ferullo, 2004; Klinefelter, 2021).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자책은 전자저널, 웹 DB, E-learning과 같은 전자 자료와 함께 구독되는 수서 대상이다. 전국 4년제 및 대학원 대학 256개, 전문대학 13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이며, 이는 <그림 1>과 같다(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그림 2>에서 나타난 대학도서관의 전자책의 대출권수 또한, 최근 4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그 추세는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021년의 대학도서관에서



〈그림 1〉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대비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



〈그림 2〉 2018-2021년 국내 대학도서관 평균 전자책 대출책수 변화 추이

의 전자책 대출책수의 상승세가 단순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분석 결과 또한 존재한다. 즉, 코로나 19 이전부터 전자자료의 이용률 상승 자체는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상승세에 더해 전자책 콘텐츠의 다양성이 보완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호가 증가한 것이다(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2.2 코로나-19와 대학도서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시작해, 2020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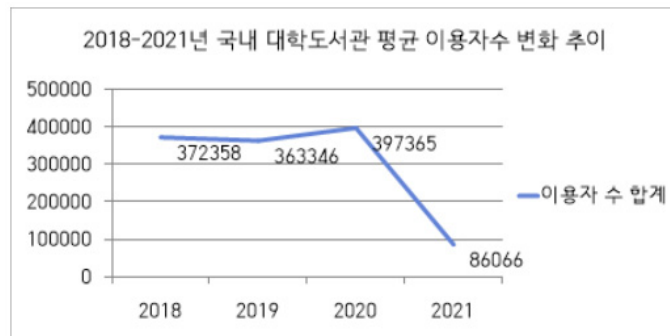
11일 WHO에 의해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된 코로나19는 국내 도서관계에도 도서관 휴관, 비대면 대출 서비스, 화상 회의 프로그램(ZOOM, 구글 미트 등)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개최 등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자료 수서, 정보서비스, 홍보 등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 운영 부문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은 한시적으로 휴관하였으며, 자료실, 열람실, 스터디룸과 같은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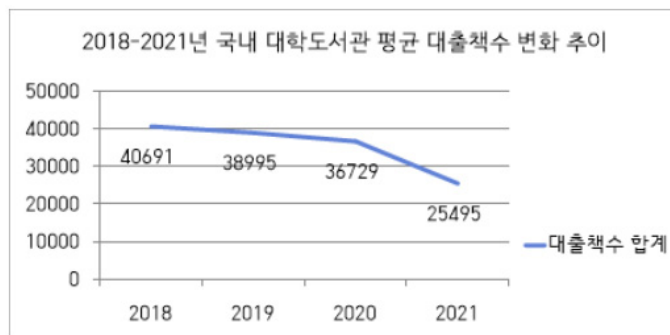
을 보였다. 이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도서관 환경변화 조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공간 사용 변화로 '정기적인 방역, 이용 공간 축소, 열람좌석 조정, 스터디룸 사용 인원 제한' 등의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다(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또한, 자료 부문에서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대학도서관의 전자자원 구입 비중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전자책 서비스 또한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전자책은 대학도서관 이용자인 대학생들의 학습자료를 지원하는 형태로도 관련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국내 재학생 10,000명 이상의 63개 대학도서관 중, 건국대, 경희대, 동아대, 서강대 등의 13개의 대학도서관은 수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자책 수서 확대 및 전자책 특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 도서관은 경북대, 계명대 등 총 46개관에 달했다(이지옥, 이용재, 202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학도서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전후 대학도서관 지표 중 전자책 대출책수 변화를 제외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표인 "국내 대학의 평균 이용자수", "국내 대학의 평균 대출책수 합계"를 각각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3> 2018-2021년 국내 대학도서관 평균 이용자수 변화 추이



<그림 4> 2018-2021년 국내 대학도서관 평균 대출책수 변화 추이

2.3 Z세대(Z Generation)

Z세대(Z Generation)는 1995년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며, 1990년대 중반 탄생한 X세대와 2000년대 초반 새로운 밀레니엄(Y2000)을 이끄는 주역으로 부상한 Y세대를 잇는 세대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022). 이러한 Z세대의 특징으로는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을 경험함에 따라 신기술에 민감한 특징을 지닌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이라는 점(최인영, 2015),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점,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 기성세대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점(박혜숙, 2016) 등을 확인할 수 있다. Z세대의 출현은 모바일 등의 SNS 사용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사회 문화적 집단 현상이며, Z세대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특성 파악은 사회 문화 전반의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박혜숙, 2016).

이러한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목받는 점은 기성세대보다 디지털 환경 및 전자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로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Z세대는 온라인 시대를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이다(정은이, 2020). 디지털 친화적이라는 Z세대의 특징은 금융 및 마케팅, 문화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 상품 홍보 방식 등이 도입되고 있다.

2.4 선행 연구

국내 Z세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책 이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전자책 독서 행태를 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 코로나19 팬데믹이 Z세대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이용자 인식에 대한 초창기 연구로는 남태우와 김진아(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전자책의 장점으로 비용절감, 관리편의, 이용자 만족, 디지털 도서관의 실현을 정의하였으며, 전자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설문대상자의 85.5%라는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전자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관의 전자책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31.3%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실제 이용자는 그보다 더 적은 12.7%에 불과하였다.

이렇듯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이용자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남영준과 최성은(2011)은 특정 대학 소재 대학생 집단 149명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대학생의 전자책 이용행태와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장혜란(2006)은 특정 대학의 학생 466명을 대상으로 전자책 인지 정도와 이용 행태를 분석해 대학도서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장혜란(2006)의 연구 결과는 전자책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높았지만 자관 전자책 서비스를 인지하는 비율과, 실제로 전자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

율은 급격하게 낮아진 현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남태우와 김진아(2003)의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김진영과 한상우(2021)은 소규모 대학도서관으로 대상을 한정해,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특정 대학에 재학중인 25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자책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장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설문조사 외에도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전자책 대출 기록을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정진한(2009)은 특정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자책 대출 기록의 KDC 주제별 구성, 대출 빈도, 성별·전공·신분에 따른 연도별 이용 추이, 주제별 이용지수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성진(2020) 또한, 대학생들의 전자책을 포함한 전자자료 이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 대학도서관의 3년간의 전자자료 이용데이터를 수집해 통계분석을 진행해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전자자료 이용행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증가라는 상황적 요인의 변화로 전자자료의 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전자자료는 대출·반납 및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자료 1건 당 이용 횟수가 종이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은 최신 전자자료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자 측면 외에 서비스 담당자의 측면에서 분석한 선행연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수정과 이지원(2016)은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 실태 분석을 위해 두 대학도서관을 선정한 뒤, 전자

책 관리 담당 사서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전자책을 위한 독립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예본과 이종욱(2021) 또한, 실제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책 서비스 업무 전반을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책 이용행태의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어느정도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학생을 포함한 MZ세대에게 미친 영향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건 전후에 대한 비교연구 가운데 Z세대의 생활 변화에 대한 연구로써 이홍승과 김준환(2021)은 코로나19로 식품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MZ세대의 종속된 온라인 소비행태를 확인하였으며, 이선우와 장우권(2019)은 코로나19 전후에 대학생들이 대학 홈페이지 이용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이전의 페이지뷰와 세션 이용에 비해 디지털 접근과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디지털 활용 선호도에 코로나19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하였다. 손영준과 허만섭(2020)은 코로나19 확산 후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존도를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코로나19 전후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여 팬데믹 이래 대학생들의 SNS에 대한 뚜렷한 이용량 급증현상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주로 설문조사와 이용 데이터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전자책 서비스 공급자인 담당 대학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 중 서로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의 경우, 남태우와 김진아(2003)와 장혜란(2006)의 연구 모두 대학도서관 전자책 이용자들의 전자책 개념 및 자관 전자책 서비스 인지 양상이 유사하였으며 전자책 서비스 담당자 관련 연구의 경우, 김수정과 이지원(2016)과 조예본과 이종욱(2021) 모두 개선사항 중 하나로 안정적이고 독립된 전자책 수서 예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자책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위해 확인하기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최대 2~3개 대학교를 한정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전후에 대한 비교연구의 경우, 주로 설문지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원용하여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주 이용자인 Z세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자책 독서 행태에 대한 전국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설문지 개발 및 분석 기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독서 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코로나19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대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코로나19의 유행이라는 하나의 상황의 영향으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즉, 기술의 발전 및 전자책 콘텐츠의 종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Z세대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 전자책 이용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MZ세대와 같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신세대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장기 휴관 및 이에 따른 이용자 수 감소를 야기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대학도서관의 주 이용자층인 대학생들의 전자책 독서 행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관련 이용자 서비스에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항목의 개발은 대학도서관 전자책 관련 선행연구와 독서 행태 관련 선행연구의 설문 항목들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전자책 서비스 이용 행태와 관련해서는 정연경(2011), 김진영과 한상우(2021), 장혜란(2006), 남영준과 최성은(2011)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독서 행태 부분에서는 박주현과 변우열(2018), 김은옥(2021), 남영준과 최성은(2011)의 선행 연구를 참조해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구성안은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설계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구분	구성 내용	문항 수
I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년, 성별	2
II	전자책 인지 및 이용	전자책 인지, 대학도서관 내 전자책서비스 이용 경험, 전자책 이용 여부 및 이유	4
III	전자책 이용현황	전자책 이용 빈도, 이용 경로, 영향 요인, 이용 방법	4
IV	전자책 선호도 인식	코로나 전후 선호도 변화, 선호도, 목적, 만족도	9
V	코로나 전후 대학도서관 및 전자책 이용 비교	대학도서관 대출권수 변화량, 대학도서관 방문빈도, 전자책 대출 변화량, 평균 독서 시간, 선호 독서 장소, 영향 요인, 독서 목적	12
전체 문항 수			31

으로 대학의 학년과 성별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전자책 인지 및 이용에 관한 문항을 통해 전자책 인지와 대학도서관 내부 전자책 서비스 이용경험, 전자책 이용 여부, 미이용 여부 및 이유 등을 물었다. 전자책 이용현황을 통해 전자책 이용빈도와 경로, 이용 시 영향 요인, 이용 방법 등을 물었고, 전자책 인식을 통해 코로나19 전후 전자책 선호도 변화, 선호도, 목적, 만족도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후 대학도서관 및 전자책 이용 비교 항목을 통해 대학도서관 이용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을 통해 코로나19와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 행태 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 문항은 IBM SPSS 22 Ver.을 사용해 빈도 분석 및 대응 표본 t 검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Z세대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전자책 이용 행태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독서 행태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조해서 개발된 설문지는 최종적으로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9일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8명의 응답을 회신 받았다.

4. 데이터 분석 결과

4.1 데이터의 특성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국내 Z세대 대학생 수는 228명이며, 4학년이 85명(37%)로 가장 높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33.77%)보다 여성(66.23%)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2 분석 결과

4.2.1 대학생의 전자책 인지 및 이용 현황 대학생의 전자책 인지 및 이용 현황의 주요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50	21.93
	2학년	52	22.81
	3학년	41	17.98
	4학년	85	37.28
	합계	228	100.00
성별	남성	77	33.77
	여성	151	66.23
	합계	228	100.00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의 참여한 대학생 중 전자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221명(96.93%)로 전자책의 높은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는 ‘알고 있지만, 이용해본 적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110명(48.28%), ‘알고 있고,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2명(40.35%)로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자관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6명(12%)으로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남태우와 김진아(2003)와 장혜란(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97%의 이용자는 전자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 절반 이하인 약 40%에 불과한 것이다.

대학도서관 내 전자책 서비스의 이용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종이책 이용으로도 충분함’을 선택한 응답자가 59명(25.88%)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책 서비스에 원하는 책이 없음’을 택한 응답자가 31명(13.60%)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전자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의 부재와 장서의 부족이 작용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홍보 부족이 대학생 이용자들의 주된 전자책 비이용 이유라고 지적한 김진영과 한상우(2021)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전자책 이용 빈도를 조사한 항목의 결과는 ‘이용하지 않는다’를 택한 응답자가 88명(38.60%)로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회 이하’ 77명(33.77%), ‘한 달에 2-3회’ 47명(20.61%) 순으로 이어졌다. 즉 이는, 전자책을 한 달에 1회 이하로 독서하는 것 보다 더 낮은 빈도로 독서하는 응답자(38.60%)보다 전자책을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61.40%)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성인 전체 연령대의 종이책 독서율 감소가 10%p 전후로 크게 나타난 반면, 20대의 전자책 독서율은 39.0%에서 50.5%로 크게 상승한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전자책 이용 경로를 묻는 문항에서는 74명의 응답자(32.45%)가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이용함을 선택하였고, 43명의 응답자(18.86%)가 국내 전자책 사이트를 선택하였다. 공공도서관을 통한 이용을 선택한 응답자가 16명(7.02%)에 불과하여 대학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이용률

〈표 3〉 전자책 인지 및 이용

구분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전자책 인지 여부	네	221	96.93
	아니오	7	3.07
	합계	228	100.00
대학도서관 운영 전자책 서비스 이용 경험	알고 있고, 이용해본 적이 있다	92	40.35
	알고 있지만, 이용해본 적은 없다	110	48.25
	자관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	26	11.40
	합계	228	100.00
전자책 서비스 이용 장애 요인	전자책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다(이용 장애 요인이 없다)	73	32.01
	전자장비로 책을 보기 불편함	14	6.14
	전자책서비스 사이트 사용의 불편함	24	10.53
	전자책서비스에 원하는 책이 없음	31	13.60
	종이책 이용으로도 충분함	59	25.88
	홍보 부족으로 전자책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다	27	11.84
	합계	228	100.00
전자책 이용 빈도	한 달에 1회 이하	77	33.77
	한 달에 2~3회	47	20.61
	한 달에 4회 이상	16	7.02
	이용하지 않는다	88	38.60
	합계	228	100.00
전자책 이용 경로	공공도서관 사서 또는 홈페이지	16	7.02
	대학도서관 사서 또는 홈페이지	74	32.45
	국내 전자책 사이트	43	18.86
	외국 인터넷 서점 사이트	10	4.39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이용 경험	1	0.44
	포털 서비스	9	3.95
	전자책을 이용하지 않는다	75	32.89
	합계	228	100.00

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책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4〉와 같다. 응답자들은 최대 3개까지의 스스로의 전자책 이용에 영향을 준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총 509개의 응답이 기록되었다. 전체 응답 중 117건(22.99%)이 '화면 구성'을 선택하였고, '대출 권수, 기간'과 '내용의 질'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즉 이는, 이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전자책 이용에 큰 영향

을 주는 요인은 전자책의 화면 구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과, 전자책의 대출 가능 권수와 기간과 같은 대출 서비스적 측면이 모두 존재함을 의미한다.

4.2.2 대학생의 전자책 선호도 인식 현황

대학생의 전자책 선호도 인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후 대학도서관 이용 시 전

〈표 4〉 전자책 이용 영향 요인(최대 3개 중복응답 허용)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대출권수, 기간	114	22.40
내용의 질	107	21.02
신간 도서	77	15.12
분량	54	10.61
프로그램 부가 기능	40	7.86
화면 구성	117	22.99
합계	509	100.00

〈표 5〉 전자책 선호도 인식

구분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코로나-19 이후 대학도서관 이용 시 전자책 이용 선호도의 변화	전자책을 종이책에 비해 매우 더 선호하게 되었다	25	10.96
	전자책을 종이책에 비해 약간 더 선호하게 되었다	38	16.67
	전자책을 종이책에 비해 약간 덜 선호하게 되었다	14	6.14
	전자책을 종이책에 비해 매우 덜 선호하게 되었다	9	3.95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142	62.28
	합계	228	100.00

전자책 이용 선호도가 증가한 이용자는 총 27.63%로, 종이책 대비 전자책 이용 선호도가 감소하였다고 답한 10.09%의 이용자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 이상(62.28%)의 응답자는 코로나19가 자신의 대학도서관 이용 시 전자책 이용 선호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대학도서관 전자책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6〉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 최대 3개까지 중복 응답을 허용한 결과 전체 응답 중 174건(32.65%)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편리성’을 선택하였다. ‘여러 책을 한꺼번에 기기 하나로 휴대 가능한 간편성’과 ‘도서 검색의 편리성’이 각각 93명(17.45%), 82명(15.38%)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종이책에 비교하여

전자책이 가지고 있는 편리함이라는 측면이 선호 요인임을 분석할 수 있다.

전자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최대 3개까지 중복 응답을 허용한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 중 170건(36.40%)이 ‘종이책에 비해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를 선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전자책에 읽고 싶은 자료가 별로 없다(자료가 다양하지 못하다, 신간이 부족함)’을 선택한 응답이 111건(23.77%), ‘전자책 이용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다(전자책에 익숙하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이 83건(17.7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자책 콘텐츠에 관한 만족도는 양적인 풍부함과 내용의 신뢰성, 자료의 최신성,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양적인 풍부함에 대해 긍정적인 응

〈표 6〉 전자책 선호/비선호 이유(최대 3개 중복응답 허용)

구분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순위
전자책 선호 이유	가독성이 좋음	14	2.63	7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편리성	174	32.65	1
	도서 검색의 편리성	82	15.38	3
	마크, 밑줄, 메모, 본문 검색, 사전 연결 등 부가적인 기능이 있어 편리함	60	11.26	5
	여러 책을 한꺼번에 기기 하나로 휴대 가능한 간편성	93	17.45	2
	절관된 자료도 전자책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편리함	70	13.13	4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빠른 신속함	40	7.50	6
	합계	533	100	
전자책 비선호 이유	기기 오류가 많다	42	9.00	5
	원하는 책을 검색하기 어렵다	54	11.56	4
	전자책에 읽고 싶은 자료가 별로 없다(자료가 다양하지 못하다, 시간 부족)	111	23.77	2
	전자책 이용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다(전자책에 익숙하지 않다)	83	17.77	3
	종이책에 비해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170	36.40	1
	없다	7	1.50	6
	합계	467	100	

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87명(38.16%), 부정적인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50명(21.93%)으로 나타났다. '내용의 신뢰성' 측면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141명(61.84%)로 부정적인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 12명(5.27%)에 비해 아주 높았으며, 자료의 최신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89명(39.03%), 부정적 응답은 47명(20.62%)으로 나타나, 최신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의 다양성을 묻는 항목의 결과로는 101명(44.3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선택을 하였고, 38명(16.66%)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묻는 항목은 103명(45.18%)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선택을 33명(14.47%)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였으

며, 89명(37.72%)의 응답자가 중립적인 선택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지만, 중립적인 선택을 한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3 코로나 이후 대학도서관 및 전자책 이용 비교

코로나19 이후 대학도서관 및 전자책 이용 행태의 비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20.02)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응답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방문 빈도 변화량과 대출 권수 변화량은 〈표 8〉, 〈표 9〉와 같다. 방문 빈도 변화량의 경우, 절반 정도(48.25%)의 응답

〈표 7〉 전자책 콘텐츠에 관한 만족도

구분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양적인 풍부함	매우 만족한다	26	11.40
	약간 만족한다	61	26.76
	보통이다	91	39.91
	약간 불만족한다	35	15.35
	매우 불만족한다	15	6.58
	합계	228	100.00
내용의 신뢰성	매우 만족한다	64	28.07
	약간 만족한다	77	33.77
	보통이다	75	32.89
	약간 불만족한다	9	3.95
	매우 불만족한다	3	1.32
	합계	228	100.00
자료의 최신성	매우 만족한다	35	15.35
	약간 만족한다	54	23.68
	보통이다	92	40.35
	약간 불만족한다	37	16.23
	매우 불만족한다	10	4.39
	합계	228	100.00
주제의 다양성	매우 만족한다	35	15.35
	약간 만족한다	66	28.95
	보통이다	89	39.04
	약간 불만족한다	29	12.72
	매우 불만족한다	9	3.94
	합계	228	100.00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전체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20	8.77
	약간 만족한다	83	36.41
	보통이다	86	37.72
	약간 불만족한다	26	11.40
	매우 불만족한다	7	3.07
	무응답	6	2.63
	합계	228	100.00

〈표 8〉 코로나 이후 대학도서관 방문 빈도 변화량 인식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약간 감소하였다	36	15.79
크게 감소하였다	24	10.53
약간 증가하였다	49	21.49
크게 증가하였다	9	3.95
큰 차이가 없었다	110	48.25
합계	228	100.00

〈표 9〉 코로나 이후 대학도서관 월 대출권수 변화량 인식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약간 감소하였다	18	7.89
크게 감소하였다	14	6.14
약간 증가하였다	51	22.37
크게 증가하였다	8	3.51
큰 차이가 없었다	137	60.09
합계	228	100.00

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 다음으로 는 약간 증가하였다(21.49%), 약간 감소하였다 (15.79%)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권수 변화량 또한,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제일 다 수(60.09%)로 나타났지만 감소하였다고 답한 응답자의 총비율(14.03%)은 자신의 대학도서관 방문 빈도가 감소하였다고 답한 응답자의 총비율(26.32%)보다 적었다.

〈표 10〉에서 나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신의 대학도서관 전자책 대출 권수 변화량 인식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를 답한 이용자가 60.5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증가하였다고 답한 이용자는 총 33.33%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신의 전자책 대출 권수가 줄었다고 인식한 이용자는 전체의 약 6.14%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양상은 〈표 9〉에서 대출 권수가 증가하였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감소하였다고

답한 이용자의 비율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즉, Z세대 대학생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스스로의 코로나 이후 대학도서관 월 대출 권수는 큰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전자책 대출 권수 변화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방문 빈도 변화 사유의 경우,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38.05%)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등 활동범위의 제약'이 28.3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피로감', 'SNS 사용 시간의 변화'와 같은 요인은 각각 6.64%, 1.77%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선호하는 독서 장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것은 〈표 12〉와 같다. 코로나

〈표 10〉 코로나 이후 대학도서관 전자책 대출 권수 변화량 인식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약간 감소하였다	7	3.07
크게 감소하였다	7	3.07
약간 증가하였다	65	28.51
크게 증가하였다	11	4.82
큰 차이가 없었다	138	60.53
합계	228	100.00

〈표 11〉 대학도서관 방문 빈도 변화 사유 인식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SNS 사용 시간의 변화	4	1.77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활동범위의 제약	64	28.32
책 구매 비용	32	14.16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감	25	11.06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피로감	15	6.64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86	38.05
합계	228	100.00

〈표 12〉 선호하는 독서 장소(최대 3개 중복응답 허용)

구성 내용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집	180	42.15	186	47.69
대중교통 등의 이동수단	35	8.20	38	9.74
카페 등의 야외 장소	91	21.31	75	19.23
도서관	47	11.01	36	9.23
학교	74	17.33	55	14.10
합계	427	100.00	390	100.00

19 이전과 이후 모두 '집'이 각각 42.15%, 47.69%로 가장 선호하는 독서 장소로 나타났으며, '카페 등의 야외 장소', '도서관', '학교'를 선호하는 장소로 답한 응답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체 응답이 427개에서 390개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는 Z세대 대학생들에게 독서 장소에 대한 제약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하루 평균 독서 시간에 대한 응답을 빈도 분석한 것은 〈표 13〉과 같다. '거의 독서하지 않았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경우 26.75%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이후 그 비율은 21.93%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Z세대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은 0.0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응답자 대상으로 코로나19가 Z세대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독서자료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의 양상은 〈표 15〉와 같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자신의 독서자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독서 필요에 따라 선택한 응답은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인터넷과 TV 등'의 요인은 코로나19 이후 그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서점, 도서관 사서의 추천'의 요인은 7.02%에서 3.51%로 약 절반 정도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표 13〉 선호하는 독서 장소(최대 3개 중복응답 허용)

구성 내용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거의 독서하지 않았다	61	26.75	50	21.93
하루에 30분 미만	77	33.77	78	34.21
하루에 30분 이상 60분 미만	54	23.68	55	24.12
하루에 1시간 이상	25	10.96	30	13.16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8	3.51	11	4.82
하루에 2시간 이상	3	1.32	4	1.75
합계	228	100.00	228	100.00

〈표 1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하루 평균 독서 시간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구분	평균	N	표준 편차	표준오차 평균	상관계수	유의확률
코로나19 이전	2.35	228	1.16	.077	0.441	〈.001*
코로나19 이후	2.82	228	1.26	.083		

* 유의수준 1%

〈표 15〉 선호하는 독서 장소(최대 3개 중복응답 허용)

구성 내용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가족의 추천	13	5.70	11	4.82
서점, 도서관 사서의 추천	16	7.02	8	3.51
스스로 선택	78	34.21	75	32.89
인터넷과 TV 등	29	12.72	42	18.42
친구의 추천	12	5.26	17	7.46
필요에 의해 선택(ex. 전공 도서 등)	80	35.09	75	32.89
합계	228	100.00	228	100.00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독서 목적의 변화 양상은 〈표 16〉과 같다. ‘코로나19 이전’을 2020년 2월 이전으로 설정함에 따라 코로나 초기의 모호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독서를 한 응답자는 3.51%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 및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 요인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요인들의 전체 응답 대비 차지하는 응답의 비율

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유사하였다. 즉, 이는 코로나19는 Z세대 대학생들의 독서 목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15〉에 나타난 ‘독서자료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과 〈표 16〉에 나타난 독서 목적이 각각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 표본 t 검정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의 확률이 각각 0.186과 0.419로 각각 0.05보다 큰 수치로 나타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표 16〉 선호하는 독서 장소(최대 3개 중복응답 허용)

구성 내용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독서를 통해 행복을 얻기 위해	55	24.12	54	23.68
시험 및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	67	29.39	68	29.82
오락거리를 위해	27	11.84	28	12.28
일반 정보/지식을 얻기 위해	43	18.86	42	18.42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28	12.28	32	14.04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8	3.51	4	1.75
합계	228	100.00	228	100.00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는 ‘독서 시간’ 요인과 달리 코로나19가 두 요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Z세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조사하고,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현상이 이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전자책 독서 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도출해 구글 폼을 통해 총 9일간 228명의 응답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 대학생들의 전자책 이용에는 대학도서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약 97%는 전자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88.6%의 응답자는 자신이 재학중인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전자책 이용 경로는 ‘대학도서관 사서 또는 홈페이지’(32.45%)였으며, 대학도

서관 내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 중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홍보 부족’은 11.84%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둘째, Z세대 대학생들은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선호하는 동시에, 전자책 자료의 최신성과 양적인 풍부함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자책 선호 이유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도서관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편리성’이었으며, ‘여러 책을 기기 하나로 휴대 가능한 간편성’ 또한 17.45%로 높은 빈도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자책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내용의 신뢰성’, ‘주제의 다양성’에 비해 ‘양적인 풍부함’, ‘자료의 최신성’ 척도의 경우, 불만족하고 있는 응답이 비교적 더 크게 도출되었다. 이는, 전자책의 비선호 이유로 ‘전자책에 읽고 싶은 자료가 별로 없다(자료가 다양하지 못하다, 시간 부족)’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는 국내 Z세대 대학생들의 독서 행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선호하는 독서 장소’, ‘독서자료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독서 목적’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의 경우 코로나19 이

전과 이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대학도서관 월 대출 권수 변화량 인식의 경우, 증가하였다고 답한 이용자는 전체의 25.88%였으며, 전자책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높은 33.33%의 응답자가 스스로의 대출 권수가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코로나19는 국내 Z세대 대학생들의 전자책 이용 행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 이후 자신의 대학도서관 전자책 대출 권수가 감소하였다고 답한 이용자는 6.14%에 불과하였다. 전자책 선호도 인식의 경우, 종이책 대비 전자책 이용 선호도가 증가한 이용자는 27.63%이었지만, 절반 이상인 62.28%의 응답자들은 코로나19가 자신의 전자책 이용 선호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단순히 코로나19라는 하나의 요인이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의 전자책 독서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책의 간편성과 편리성을 강점으로 계속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한편, 보다 최신 자료를 수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생 이용자들은 전자책 자료의 양적인 풍부함에 대해 다른 요소들에 비해 비교적 덜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콘텐츠의 다양성이 보완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호가 증가하였다는 주장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즉, 전자책 콘텐츠의 다양성은 Z세대 대학생이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요인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면할 문제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무시 못 할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현상이 두 번 다시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다양성 및 최신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성은 먼저 대학도서관 외적으로는 국내 전자책 출판시장과의 적절한 합의와 대학도서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 내적으로는 대학도서관 장서 구성 계획 단계에서 전자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을 확보해 범위를 확대하여 자료의 다양성 및 최신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전자책 예산의 확보를 언급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조예분, 이종욱, 2021). 또한 예산적 측면 외에도, 정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률 증감의 내·외부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수요 유형, 장르 등을 확인하여 다양성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가 국내 Z세대 대학생들의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독서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대학생 이용자들의 독서 시간 및 독서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독서량에 독서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정대근, 2022)와 관련지어 보았을 때 대학도서관은 이용자들 스스로의 독서 태도를 돌아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돕는 이용자 교육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를 돕는 비대면 독서 동아리 지원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셋째, 전자책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홍보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저널의 경우 대학도서관 이용자에게 이미 상당히 높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에서는 전자저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용자 교육 및 연계 이벤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Z세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도서관은 전자책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장소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을 홍보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전자책을 참고서로써 모기관인 대학의 강의에 활용할 수 있게 돕는 등 다양한 전자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홍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저널 관련 이용자 서비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학도서관의 전자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영역의 전자책 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단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 독서 행태 및 전자책 이용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단순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하나의 상황이 Z세대 대학생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전자책 이용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님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복합적인 요인이 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장기간 휴관, 비대면 강의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내에서의 대학도서관 이용 및 독서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인을 확인해 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률 증가 및 이용자 만족도 상승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전자책 독서 행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FGI 등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설문 조사만을 진행해, 코로나19가 초래한 이용자의 전자책 이용 행태 및 독서 행태의 변화를 세분화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특정 대학도서관 이용자 대상이 아닌, 전국의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의 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의 주체별 분포와 같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전자책 시장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국내 Z세대 대학생들의 독서 행태와 전자책 인식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2021년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 자료집.
- 김성진 (2020).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대학생의 전자자료 이용행태 분석: A대학도서관 이용통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53-82.
<https://doi.org/10.4275/KSLIS.2020.54.4.053>
- 김수정, 이지원 (2016). 대학도서관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 실태 분석: A와 B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67-190.
<https://doi.org/10.16981/kliss.47.4.201612.167>
- 김은옥 (2021).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 자녀와 일반인 자녀의 독서행태 비교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45-64.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45>
- 김진영, 한상우 (2021).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D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429-445.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429>
- 남영준, 최성은 (2011).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287-310. <https://doi.org/10.4275/KSLIS.2011.45.1.287>
- 남태우, 김진아 (2003).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4(2), 25-53.
<https://doi.org/10.1633/JIM.2003.34.2.025>
-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서관 온라인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185-210.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185>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박주현, 변우열 (2018).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이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123-147. <https://doi.org/10.16981/kliss.49.201803.123>
- 박혜숙 (2016).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Z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6), 753-767.
- 손영준, 허만섭 (2020). 코로나19 확산 후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 체감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1957-1971.
- 이선우, 장우권 (2021). COVID-19 전후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C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8(3), 141-174.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141>
- 이지욱, 이용재 (2021). 뉴노멀시대 대학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357-377.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357>
- 이호신 (2021).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저작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131-154.

- <https://doi.org/10.4275/KSLIS.2021.55.3.131>
- 이홍승, 김준환 (2021).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소비행태 변화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3), 47-54. <https://doi.org/10.14400/JDC.2021.19.3.047>
- 장혜란 (2006). 대학생의 웹기반 전자책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233-256. <https://doi.org/10.3743/KOSIM.2006.23.4.233>
- 정대근 (2022). 대학생의 독서태도 및 독서량,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211-230. <https://doi.org/10.16981/kliss.53.1.202203.211>
- 정연경 (2011). 전자책에 대한 도서관의 학부모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09-12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3.109>
- 정은이 (2020). Z세대가 선호하는 방송콘텐츠에 관한 연구: 20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8, 141-181.
- 정진한 (2009). 대학도서관 전자책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13-133. <https://doi.org/10.4275/KSLIS.2009.43.1.113>
- 조예분, 이종욱 (2021). 활동이론에 근거한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4), 89-109.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4.089>
- 최인영 (2015). Z세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문의 교육목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3), 675-683.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8382호.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2). Z세대. 출처: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2083>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 2021년 출판산업 실태조사.
- 한주리 (2021).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상생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107-129.
- Ferullo, D. L. (2004). Major copyright issues in academic libraries: legal implications of a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40(1-2), 23-40.
- Klinefelter, A. (2021). Copyright and electronic library resources: an overview of how the law is affecting traditional library services. *Teaching Legal Research and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Resources*, 175-19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Hye-Rhan (2006). The use of web-based electronic book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233-256. <https://doi.org/10.3743/KOSIM.2006.23.4.233>

- Cho, Ye-Bon & Lee, Jong-Wook. (2021). Task analysis of e-book service academic librarians based on activity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4), 89-109.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4.089>
- Choi, Albert-Young (2015). A study on the objectives of communication design education for the generation Z.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1(3), 675-683.
- Chung, Un-Ee (2020). A study on broadcasting contents preferred by generation Z: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in their 20s among generation Z.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58, 141-181.
- Chung, Yeon-Kyoung (2011).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 about e-book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09-12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3.109>
- Han, Julie (2021). Study on the win-win plan of library e-book service on the controversial issues with publishers. *Studies of Korean Science*, 47(6), 107-129.
- Hankyung Dictionary of Economic Terms (2022). Generation Z. Available: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2083>
- Jeong, Dae-Keun (2022).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reading attitude, reading amount, and personality typ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1), 211-230. <https://doi.org/10.16981/KLISS.53.1.202203.211>
- Jung, Jin-Han (2009). A study on the scheme to activate an e-book service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113-133. <https://doi.org/10.4275/KSLIS.2009.43.1.113>
- Kim, Eun-Ok (2021).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ading behavior between children of children's reading and culture movement organization members versus non-member children: based on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2), 45-64.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45>
- Kim, Jin-Young & Han, Sang-Woo (2021). A study on the status of e-books usage in small university library: focusing on the D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2), 429-445.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429>
- Kim, Soo-jung & Lee, Ji-won (2016). An analysis of the current practice of e-book management and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focused on A and B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167-190. <https://doi.org/10.16981/KLISS.47.4.201612.167>

- Kim, Sung-Jin (2020). Analysis of usage behaviors for the electronic resources of undergraduates in a smart mobile environment: focused on the usage statistics of the A-academ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4), 53-82. <https://doi.org/10.4275/KSLIS.2020.54.4.053>
- Lee, Hong Seung & Kim, Joon-Hwan (2021).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behavior due to COVID-19: focusing on MZ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3), 47-54. <https://doi.org/10.14400/JDC.2021.19.3.047>
- Lee, Ho-sin (2021). Library's e-book service and copyri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3), 131-154. <https://doi.org/10.4275/KSLIS.2021.55.3.131>
- Lee, Ji-Wook & Lee, Yong-Jae (2021). A study on the sustainable academic library services in the new normal 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2), 357-377.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357>
- Lee, Sun Woo & Chang, Woo Kwon (2021). A study on the usage behavior of universities library website before and after COVID-19: focusing on the library of C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3), 141-174.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14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 Ministry of Education (2021). 2021 University Library Survey Results Analysis Data Collection.
- Nam, Tae-Woo & Kim, Jin-a (2003). A study on the e-book service of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4(2), 25-53. <https://doi.org/10.1633/JIM.2003.34.2.025>
- Nam, Young-Joon & Choi, Sung-Eun (2011). A study on user satisfaction with e-book service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287-310. <https://doi.org/10.4275/KSLIS.2011.45.1.287>
- Noh, Young-hee, Kang, Pil Soo, & Kim, Yoon Jeong (2020). A study on the activation measures of library's online services to overcome COVID-19.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185-210.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185>
- Park, Hye-Sook (2016).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generation with life style: focus on generation Z.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6), 753-767.
- Park, Ju-hyeon & Byun, Woo-Yeol (2018). The effects of school library personnel on students' reading behavio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123-147. <https://doi.org/10.16981/kliss.49.201803.123>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1). A Survey of the Publishing Industry in 2021.

Publishing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Act No. 18382.

Son, Young Jun & Heo, Mansup (2020). A study on social media usage, helplessness, and loneliness experienced by college students since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11), 1957-1971.